

구글 2면

# 국회,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속도 “구글 독점지위 막자”

## 구글 ‘앱 통행세’ 칼 빼들까

구글, 수수료 30% 부과하기로 밝혀  
여야, TF 구성... 통합조정안 합의  
“글로벌 기업 대항에 힘 보태야”



22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내일 23일 국정감사 종료 이전에 법안소위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저와 여야 간사의 합의 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를 인상에 대해 많은 국민이 격정하고 있다”며 “합의된 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글로벌 기업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29일 게임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모

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변화된 정책은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1년 10월부터 적용된다. 구글은 국내 콘텐츠업체의 반발을 의식해 향후 1년간 1억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에 여야는 지난 7일 국정감사 기간에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통합조정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과방위 실무 TF는 조승래·한준호·홍정민 민주당, 박성중 국민의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을 통합·조정하고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미국 법무부가 20일 구글의 경쟁자 시장진입을 막는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20년만에 대형소송... 美 “구글 갑질 안돼”

## 국내외서 시끄러운 구글

美 법무부 “소비자 선택권 줄어”  
애플과 상호협력 관계... 시장 독점  
안드로이드 OS에 선택제·삭제불가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MS) 소송 이후 20년 만에 대형 소송으로 주목 받고 있다.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구글이 검색 및 검색광고 영역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소장을 냈다.

구글이 자사 앱이 선택제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으며,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익배분 계약을 통해 타사 앱의 선택제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구글과 애플과의 관계에도 주목했다. 양사가 겉으로는 경쟁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독점해왔다는 것이다. 구글은 자사 앱이 선택제된 상태에서 애플의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등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애플에 연간 80억 달러(약 9조760

억)에서 120억 달러(13조6000억 원)를 제공했다. 이는 애플 수익의 15~20%에 달하는 거액이다.

법무부는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다른 업체들이 구글과 경쟁이 불가능했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는 구글 앱이 선택제됐을 뿐만 아니라 삭제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 대변인은 “소비자들이 구글 사용을 강요받거나, 대안이 없어서 구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선택한 것”이라며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은 큰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미 법무부가 이 소송을 1년 이상 준비해왔고 소송 결과에 따라 인터넷 기업의 판도에 중대한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소송이 진행된 이후 미국

정부가 구글에 회사 분할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앞서 2000년 MS도 웹 브라우저 끼워팔기 혐의로 미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에서 회사분할 명령을 받았지만, 당시 MS 창립자 빌 게이츠가 CEO 자리에서 물러나며 회사 분할을 막았다.

국내에서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와 관련해 논란이 뜨겁다. 구글이 내년부터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의 결제 수수료를 받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다.

구글이 자국 정부로부터 소송에 휩싸이면서 국내의 대응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22일 “자국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도 이렇게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사업자도 아닌 해외사업자인 구글로부터 불공정한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을 요구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구글의 인앱결제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인도에서는 구글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자 구글이 수수료 확대 시기를 6개월가량 늦춰주기도 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이노비즈협 ‘한-러 혁신플랫폼’ 스타트업 서밋 이노비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과 지난 19일부터 21일 까지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한-러 혁신플랫폼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한-러 혁신플랫폼은 2018년 6월 스타트업 교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기술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과 러시아 양국 정상간 합의를 거쳐 추진하게 됐다. /이노비즈협회

# 포스코인터내셔널, 수입 밀 국내 최초 반입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터미널 이용  
곡물 안정적 공급체계 확보 박차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국내 최초로 해외에 자체 보유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터미널을 통해 사료용 밀을 국내로 처음 들여왔다. 이에 따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국가식량안보’의 구체적 성과를 거두고, 곡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확보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2일 우크라이나에서 총 6만8000톤의 사료용 밀을 곡물 수입업체 농협사료와 함께 국내로 들여왔다고 밝혔다. 인천항을 시작으로 국내 3개 항에서 하역했다. 이 가운데 4만1000톤은 회사가 투자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터미널에서 수입한 물량이다.

이번 식량 수입은 국내 기업이 확보한 최초의 해외 곡물 수출터미널을 통해 양질의 사료용 곡물을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곡물 수출터미널은 곡물을 선적하기 전에 저장하는 일종의 창고다. 수출터미널이 있으면 가격이 낮을 때 곡물을 비축했다가 수요가 급증할 때 선적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은 “코로나19로 주요 식량 수출국들이 자국 식량 비축에 집중하고, 해외 메이저 곡물회사들이 국제 곡물 시장을 장악하는 등 세계 식량 시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



포스코인터내셔널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터미널에서 사료용 밀을 선적하는 모습.

황에서 농협사료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으로 사료 시장의 고정거래 기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밀 수요량은 343만톤으로, 이중 자체 생산량은 2만톤 안팎에 불과하다. 나머지 물량은 모두 수입에 의존한다. 이중 식용은 255만톤이며, 사료용은 곡물 가격 변동에 따라 옥수수 등 다른 곡종으로 대체 구매하는 실정이다.

포스코는 이번 사료용 밀 공급을 계기로 자체 터미널을 통한 밀, 옥수수 수입을 확대해 안정적인 국가 곡물 조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은 2018년 100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식량 사업 육성을 선정했다. 이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9월 세계 최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에 국내 기업 처음으로 연간 250만톤 규모의 곡물 출하가 가능한 터미널을 준공했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과 중동·북아프리카 및 아시아지역에 옥수수, 밀 등을 판매해왔으며 우크라이나를 곡물 트레이딩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식량 사업은 쌀을 시작으로 밀과 옥수수, 대두(콩), 보리 등 주요 곡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2015년 84만톤이던 교역량은 올해 약 750만톤으로 증가했다.

주시보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은 “국제 곡물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식량 사업을 더욱 육성해 해외농업자원을 안정적으로 국내로 조달하는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식량안보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중진공, 中 中 中 온라인 해외진출 돕는다

입주사 20곳, 현지 바이어와 화상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달 30일까지 미국 뉴욕과 중국 상하이 창업특화BI 온라인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해외진출 사절단 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진공의 수출BI(비즈니스인큐베이티)는 미국, 중국 등 12개국, 20곳에 운영하고 있는 해외거점으로 사무공간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수출마케팅, 법률자문, 통·번역 등 수출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중진공은 창업특화BI 프로그램을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해 코로나19로 입출국이 막힌 상황에서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7월 뉴욕·상하이·호치민 창업

특화BI 온라인 입주기업 35개사를 최종 선정하고 기업과 업종별 맞춤 보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절단에는 뉴욕·상하이 창업특화BI 입주기업 20개사가 참여한다. 소비자·헬스케어·IT 분야에 특화된 입주기업들은 뉴욕·상하이BI가 직접 현지에서 발굴한 바이어, 전문가 등 60여개사와 화상회의로 만난다.

미국과 중국 현지 대형 유통업체, 산업·원자재 업체, 창업투자사 등 다양한 분야의 바이어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입주기업 사업계획과 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매칭을 진행하여 단순 상담이 아닌 수출, 투자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와 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승호 기자 bada@